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

www.khdi.or.kr



표지인물 문국현 (주)유한김벌리 사장

문국현 사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과 설비를 늘리면서 매년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다. 특히 4조 근무제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직원들의 평생교육에도 크게 이바지해 신경쟁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창안해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시키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문사장을 만나 뉴패러다임을 이용한 경영혁신과 기업과 환경운동의 관계 그리고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관련기사10~13면>

2004 January **1**

- 3 머릿글**
김종욱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 4 주간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1월 프로그램
- 6 화제의 강연**
박주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 비서관
- 10 자랑스런 회원**
문국현 (주)유한김벌리 사장
- 14 나의 경영이야기**
윤희진 (주)다비육종 사장
- 16 지자체 특강**
김두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 19 차이나클럽**
- 22 세상을 보는 눈**
최윤희 카피라이터
- 24 회원&연구원소식**
- 28 원로회원을 찾아서**
송재문 (주)알파스포츠 회장
- 29 발행인 편지(신년사)**
- 30 이시형 칼럼**

Better People, Better World 통권 제 35호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월간 비매품
발행일 : 2004년 1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전 화 : 2203-3500(대) 팩 스 : 2203-1974
홈페이지 : www.khdi.or.kr 주 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8-8
편집디자인 :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 쇄 : (주)동명인쇄 462-6323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삼화페인트가 없었다면...

생활 속에 녹아있는 삼화페인트의 첨단과학이 편리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녹슬지 않고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대형유조선의 선박용도료는 물론 인체에 해가 없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항균성 바이오페인트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화페인트 까지 삼화페인트의 과학은 실생활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는 페인트 그 이상의 가치실현을 위해 한층 진보된 첨단 기술력으로 실생활의 필요한 것을 제품화로 연결 시키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SAMHWA

삼화페인트

New Year's Resolution



김종욱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이 ‘元亨利貞’이라는 말을 가끔 쓰셨는데 아마도 착하거나 성실하다는 뜻일 거라고 마음대로 짐작했었다. 그러던 중 대학을 다니면서 정확한 뜻을 알게되었고 그 내용인즉, 역학에서 말하는 天道의 네 가지 원리로서 元은 봄으로 만물의 시초, 亨은 여름으로 만물이 자라고, 利는 가을로 만물이 여물고, 貞은 겨울로 만물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사물의 근본이 되는 원리’라는 뜻도 되고, 집안 어른들은 매사를 원리대로 성실하게 처리한다는 뜻으로 쓰셨던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보면 하루, 1년, 人生을 모두 元亨利貞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들의 一生을 보면 태어나서 20세까지를 봄, 20에서 40세까지를 여름, 40에서 60세까지를 가을, 60에서 80세까지를 겨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연습으로 산다거나 적당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다행한 일은 우리네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매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사실이다. 매년을 일생으로 치고 살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수십 회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새해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같이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20년 전 영국에서 주재할 때 현지 직원들로부터 매우 의미있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다. 영국사람들도 물론 “Happy New Year” 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하며 묻는 것을 잊지 않는다. 즉, 금년의 결심은 무엇으로 정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다.

결심 내용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내용은 더더욱 아니어야 한다. 다만 실행가능하고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는다던가, 술은 일주일에 한번만 마시기, 책을 한 달에 두 권 이상 읽기, 매일 30분간 조깅하기, 월 1회 이상 부모님 찾아 뵙기, 가족과 월 2회 이상 야외로 나가 즐기기 같은 것들이다.

사람들이 매년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훌륭한 성직자가 “人生은 끊임없이 人間가치를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듯 元亨利貞대로 한해 한해를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年初에 훌륭한 결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결심을 하시고 복되고 알찬 甲申年을 맞이하시길 기원해 본다. 人間



2004년도 세계정세와 한반도 안보
 1333회 1월 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문 정 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 국제학연구소 소장

이라크전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맞이했던 2003년이 저물었다. 그러나 2004년의 세계정세도 지난해 못지 않은 대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대선을 비롯한 세계 권력지도의 재편 기미, 이라크·아프간등 주요 분쟁의 풍향 등 을 한 해도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사담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의 생포 소식은 이라크의 향후 정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판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선에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는 세계정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시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주의적 외교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북핵문제가 본격적인 외교현안으로 떠올라 한반도의 정세불안은 물론 한국 정부와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딘 전 주지사가 1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양자접촉을 통해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듯이 상대적으로 유화적이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문제가 미국의 태도에 따라 많은 부분이 좌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의지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연세대 정외과 교수이자 국제학연구소 소장이며 교수사회에서 영어를 잘하기로 소문이 난 문정인 교수를 초빙하여 2004년도 세계정세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 ▲ 연세대 철학과 졸업(1977)
- ▲ 美 매릴랜드대 정치학 석사(1981)
- ▲ 美 매릴랜드대 정치학 박사(1984)
- ▲ 美 윌리엄즈대 정치과 조교수(1984-85)
- ▲ 美 켄터키대 정치과 조교수(1985-87)
- ▲ 美 매릴랜드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1985)
- ▲ 인하대 정외과 조교수 및 학과장(1987-88)
- ▲ 한국정치학회 국제위원장(1994)
- ▲ 연세대 통일연구원 원장(1998-현)
- ▲ 청와대 국가안정보장회의 자문위원(1999)
- ▲ 美 국제정치학회(SA) 부회장(2002-현)
- 〈상훈〉 美 국제정치학회 최우수논문상, 美 평화학술논문상 외
- 〈저서〉 對美통상로비(공저) 민주화 시대의 정부기업관계(편저) 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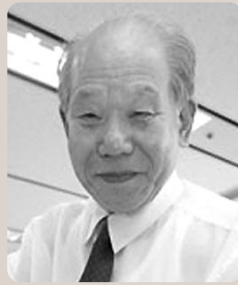
연세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공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간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1334회 1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피어볼룸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정책당국과 기업들의 시각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내년도 GDP성장률을 각각 5.2%와 5.3%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3~4%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또 내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어서 투자활성화를 경제운용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등 정부와 차이를 드러내 내년도 경제성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도 우리 경제가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는 있으나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 속도와 폭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 회복 역시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운용의 목표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창출에 두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며 6월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처음 지정,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 어느 때보다 2004년도 경제운용방향이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부 경제운용 목표와 관련하여 최근 설비투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관련 규제를 기업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초빙하여 불투명한 2004년도 경제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1)
- ▲ 영월세무서장 (1983)
- ▲ 미국 위스콘신대학원 (1988)
- ▲ 세계국 재산세제과장, 저세정책과장 (1988)
- ▲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삼심심판관 (1994)
- ▲ 부총리 비서실장 (1996)
- ▲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 (1998)
- ▲ 재정경제부 차관 (2001)
- ▲ 국무조정실장 (2002)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2002)
- 〈상훈〉 홍조근정훈장

보다 정열적인 활동을 위한 뜰력법

1335회 1월 2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김남수 남수침술원 원장 /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한 동네에는 침구사가 한 명씩은 있었다. 침은 침구 하나만 있으면 되고, 뜬은 썩만 있으면 되는 가장 서민적인 의술로 서민들의 건강을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침구사 양성제도가 폐지되고, 오히려 침과 뜬이 너무 싸기 때문에 보급도 되지 않았다. 침구사의 대가 끊어짐에 따라 현재 국내의 합법적인 침구사는 80여 명으로 실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약이 병이 난 후에 쓰는 것이라면 침과 뜬은 병이 나기 전 예방의학 차원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뇌중풍, 안면신경마비, 위염, 장염, 백내장 등 300여 종의 질병을 침뜸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침구사 양성제도의 부활을 생각해보는 것은 전통의술의 맥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중인 침구사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는 김남수 '남수침술원' 원장은 폐지된 침구사법을 부활시켜 손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침술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40여 년간 헌신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병을 고치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어깨통증을 치료해 준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70여 년 침술 외길을 걸어온 김남수 원장을 초빙하여 전통의술로 이어져 온 침술과 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 ▲ 남수침술원 개원 (1943)
- ▲ 서울맹학교 교과서 제정위원 및 심의위원
- ▲ 중국 북경 침구공상학회 (현 북경중의약대학) 객좌교수
- ▲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침구사 고시위원 및 교육위원
- ▲ (사)대한침구사협회 임법추진위원장
- ▲ (사)대한침구사협회 봉사단장
- ▲ 뜬사랑, 뜬사랑 봉사단 단장
- ▲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정통침뜸교육원 원장
- ▲ 녹색대학 석좌교수
- 〈저서〉 뜬의 이론과 실제(1987) 침뜸 이야기(1995) 나는 침과 뜬으로 승부한다(1996) 생활침뜸의학(1999) 침뜸의학개론(2002) 외

기업경영의 과제와 문제점

1336회 1월 2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머랄드룸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 부진, 소비침체, 청년실업 증가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중국 등 후발국들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벌들의 거액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투명, 윤리경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동안 투명경영을 위한 사내의 감시 시스템 강화, 소유· 지배구조 전환 등의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재계의 의지와 함께 정치자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의 중심은 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기업이다. 대신자금 수사 등으로 실추된 재계의 위상을 회복하고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고 기업은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종업원의 신뢰를 쌓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19년 전통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박용성 회장을 초빙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과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65)
- ▲ 美 뉴욕대 경영대학원 석사 (1969)
- ▲ 한양투자금융 상무이사 (1973-74)
- ▲ 두산기계 전무이사 (1976-77)
- ▲ 동양맥주 사장 (1984-89)
- ▲ 대한유도협회 회장 (1986-96)
- ▲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1989-91)
- ▲ 오비맥주 회장 (1996-현)
- ▲ 국제유도연맹 (JF) 회장 (1995-현)
-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00-현)
- ▲ 두산중공업 회장 (2001-현)
-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2002-현)
- 〈상훈〉 체육훈장 맹호장(1986) 금탑산업훈장 (1996) 별기에 왕립훈장 (2000) 외
- 〈저서〉 꿈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다 (1993)



대통령비서실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비서관

정부의 참여정책 제대로 되고 있는가

부자친구의 집에는 수입 오로라연필이 방바닥에 굴러다녔다. 부자친구들은 이것이 조금만 짧아지면 버린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엄마가 맛있는 양과자를 줘도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친구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것을 시골 친구에게 갖다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잘 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같은 재화라도 쓰는 사람의 만족도와 효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물건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거기에서 더 큰 효용과 만족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와서 경제학원론을 듣고서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었구나 알게되었다.

사회정책도 효율성과 효용성의 관점에서

그런 원칙을 알고 나서는 기부를 하더라도 기부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다. 내가 10만원을 갖고 있다고 하자. 나는 그것으로 10의 만족밖에 얻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100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만족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15정도의 만족을 얻는다. 나는 10의 만족을 얻을 것을 15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사용했을 때보다 주고서 볼 때의 만족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기부를 한다. 그것이 대개 10분의 1정도다. 십일조도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참여정부에 참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 비판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전체가 아직 실력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참여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직접민주주의가 참여다. 참여의 궁극적인 끝점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다. 다만 그 쪽을 향해서 갈 뿐이다. 대의민주주의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지방분권, 시민사회, 움부즈맨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만드는데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참여다. 김영삼 대통령 때 행정쇄신위원회가 만들어져 행정쇄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부안에 민관합동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해집단이나 전문가들이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 자문역으로서 참여를 했다.

나는 사회법을 전공했고 사회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내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법칙에 따른 관심 때문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내 친구 중에는 부자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집안에 풀장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 사귀었다. 방학 때는 외가에서 보냈다. 고개하나만 넘어가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있는 소작인 촌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나의 친구들은 많았다. 학기 중에는 풀장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방학 때는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가서 종자고구마를 꺾아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0년 간 그렇게 살다보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재화와 물건의 효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과 매체가 발달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올라가고 시
민사회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전문가 몇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부족하다
고 느끼고 직접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옴부즈맨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 건의하
는 방식으로 하고 끝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직접 결정과정에 참여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하는 이야기들에 대
해 반응을 보여주고 반영을 해달라고 한다.

반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을 하자
는 이야기이고, 반영을 해달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예도 많지는 않다. 주민투표를 하다보면 기술적으로 어려
운 점이 많고, 어떤 범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
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많다.

나는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와 정당이
정상화되고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열기는 가라앉게 된다. 평상시 시스템으로 의견이 전달
되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참여열기나 욕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우리는 과도기적인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동안 관준민비 사상에 젖어있었다. 관료주의는 벽이었다.
관준민비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때문에 국민들은 행정관청에 가면서
다 가슴에 멍이 들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는다. YS, DJ정
부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은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평
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견뎌야 된다.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국민의 마음이 풀린다. 풀리면 그때는
국민과 제대로 소통이 된다고 나는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한다. 국민들
이 참여가 없는 참여정부라고 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참
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국민들의 어떤 원이 풀린
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원혼들을 위한 회원굿을 하라

처음 국민참여수석직을 수락하고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행정부의 민원창구에 가면 원혼들이 떠돌아다
니니 그 원혼들을 위한 회원굿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
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원창구나 뒤지고 다닌다는 비하를 일년간
견뎌내라고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또 한가지의 방법은 정책발명
가를 모시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굉장한 아이디어가 많다. 독서대를
편리하게 만들어서 특허를 내기도 했고, 컴퓨터 인명관리 프로그램도

본인이 개발한 것이 있다.

이처럼 국민들 중에도 정책발명가가 있다고 하셨다. 보통사람은 잊
어버리고 귀찮아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골똘히 생각해서 대안을 만들
어내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제안들을 다 모아
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셨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없애라고 하셨다. 민원이 있으면 규정해석상 맞나 틀리
나 해석하지 말고 이 규정이 합리적인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문제의
식을 갖고 규정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은 개념법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책상에서 만들어지
는 것이 많다. 나는 88, 89년에 탁아입법을 올린 적이 있었다. 보육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라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은 사실 입법사항이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하
고 국회의원들이 챙겨야 한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넣어서 제
출했더니 당시 민정당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사회주의 공방이었다. 북한의 탁아소를 우리나라에 만들자는
것은 사회주의 입법이라고 했다.

또 한가지는 법률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 있어야 되는데 시
행령, 시행규칙에 있을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권한이고 의무사항인데 다
행정부에 넘겨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야기해보면 현장에서 법률은 필요 없다. 지
침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하고 시행령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시민사회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입법운동은 그만
하고 시행령 이하를 봐야 한다. 거기에 보물이 다 숨어있고 불합리한
것이 다 있다. 그것만 합리적으로 만들어도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기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법률이 내려오
면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행령은 기획부서에서 법률을
보면서 책상에서 끄적끄적한다. 그리고 규칙도 시행령을 보고 끄적끄
적한다. 현장에 내려가면 연역적인 과정이다.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
침,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와 정책기획부서가 완전히 떨어져있다. 정책기획 부서에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던지면 그만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은 매일 전화로 문의한다. 정책기획부서의 공무원들이 민원전화에 시달리는데 그 민원전화를 하는 사람이 다 집행부서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전화를 받느라고 일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현장성이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으니 현장에서 적용하다보면 문제가 생긴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리되어 올라가서 정책기획부서에서 제도개선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규정에 대해 스크린 하는 역할을 했다. 기존의 규정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역할까지는 못했고, 규정을 새로 만들 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크린 하는 역할을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한계가 지적되었는데 그것은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탈 규제라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기보다 없앤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소방안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규정이 없어지기도 하고 건축관련 규제가 없어져 사실 민원이 더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매우 불리해졌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없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더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연역적인 행정에서 사례, 판례에서부터 행정이 시작되는 귀납적인 행정으로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셨다.

연역적인 행정에서 귀납적인 행정으로

처음에 국민참여수석실에 있는 직원들이 기안을 냈다.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국민참여과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내용의 안을 올렸더니 대통령께서 반대했다. 대통령은 행정개혁에 3가지가 있다고 보셨다. 지방분권, 행정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행정개혁이 그것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연역적인 행정에서 귀납적인 행정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 안 된다.

실천으로 보여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마인드를 바뀌야 하는데 조직을 만든다고 마인드가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직접 민원과 제안을 받고 처리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모두 매뉴얼을 만들라고 하셨다. 그리고 각 부처에 다니면서 공무원 상대로 교육하고 매뉴얼을 전파하고 그 매뉴얼을 실현할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을 그때 가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참여마당을 5월에 열었다. 거기서 제안을 받고 토론 마당을 열고 민원을 받는데 지금까지 민원을 7만 건 정도 받았고, 제안은 인수위 때 2만 건을 받고, 국민참여마당에서 3만 건을 받아서 5만 건을 받았다.

그리고 토론마당에서 4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열어서 많게는 2천 건씩 의견을 받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은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그 중에 주요한 민원들, 집단민원, 고질민원, 반복적인 민원은 직접 챙겨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 중에 민원을 분석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 민원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 비서관실에서 제안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다.

흠어져있는 국민들의 소리는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은 온라인 상으로 온다. 3만 건의 제안 중에서 '교통'을 입력하면 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것을 훑어보면 제도개선 과제의 흐름이 보인다. 국민들이 교통에 관해 느끼는 불편한 점의 흐름이 보이고, 20가지 정도의 제도개선 과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축적이 되고 분류가 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의 제안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찾아다니기도 한다. 첫 번째로 한 것은 현장모니터였다. 각 지역의 파출소, 순경, 지자체 7·8급 공무원, 아파트 부녀회, 구청 등 5명 정도가 암행 어사처럼 전국을 몇 달 동안 계속 돌아다녀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모았다. 그리고 중요한 이익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을 분야별로 직접 만났다. 보건·의료, 교통, 복지 등 관련단체를 만나서 그 단체들이 소지하고 있는 제안사항, 문제의식을 받아와서 제도개선을 한다.

특히 노인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보면 노인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것은 기획제도개선으로 해서 따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제도개선과제를 가지고 일단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부처에 의견을 묻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제도개선심의회를 연다. 문제제기가 타당한지, 바꾸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공익에 맞는지 등을 심사해서 제도개선 방향이 정해지면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두 개 이상 부처와 관련된 경우이거나 부처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경우다. 그럴 경우 부처를 부르는데 부르지만 해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은 평균 두 번 제도개선 간담회를 했고, 어려운 문제는 6번까지도 미팅을 한다. 부처와 합의를 하면 일단 종결하고 사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 모든 부처의 시행령 이하는 다 다뤘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합의한 것이 지금 108건 정도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00여건 정도 된다.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는 이 일을 각 부처에 확산하라고 지시하셨다. 일년동안 하고 나서 부처에 확산하려고 했는데 앞당기자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몇 개월간 각 부처의 상황을 파악했고 현재 각 부처의 민원과 제안, 제도개선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행정부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규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규정해석상 이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면 끝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규정해석상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규정을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겠음" 이렇게 해서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챙기라는 것이다. 국민참여수석실에서 하는 그 일을 따로 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안에서 해결해야

부산에 물류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규정에 문제가 있어 문제해결이 안되니 생계를 팽개치고 일년간 쫓아다녀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면 바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안되든지 해야지 일년간 진을 빼놓고 나서 해결이 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이 문제제기만 하면 해결되고 바뀌고 하는 것은 정부안에서 알아서 해야지 국민이 일일이 처음부터 쫓아다니면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민원대행공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셨고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민원과 제안,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제도개선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내년 1년간은 매뉴얼을 확산하고 교육을 시킬 것이다. 사실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제안마당 코너가 있다. 그러나 애는 낳아놓고 키우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거기 들어와 있는 제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반응을 하고, 반영을 해야 활성화된다. 참여마당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굉장히 거친 제안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을 읽고서 그 뒤에 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캐치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다.

애가 울면 배가 고프지 어디가 아픈 지를 알아내는 것이 엄마의 능력이다. 국민이 거친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표현을 제대로 못할 뿐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정말 유능한 공무원은 그것을 캐치한다.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 뒤에 숨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 그 포인트를 잡아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민원 제안, 제도개선, 연계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출발이고, 내년 일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고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도개선이 되는지 문제해결의 방법을 다 전파하려고 한다. **人間**



뉴패러다임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경영혁신가

(주)유한김벌리 문국현 사장

유한김벌리는 지난 33년 동안 소리없이 세상을 닦아주는 제품들을 생산해온 위생용품 전문업체이다. 이들 제품의 1차 원재료는 나무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한김벌리라고 하면 나무를 심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이름을 들으면 숲을 떠올리고 나무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유한김벌리가 20년간 숲 가꾸기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환경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유한김벌리는 IMF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과 설비를 늘리면서 매년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원료단계에서 마지막 제품생산 단계까지 오염 요인을 완전히 배제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신뢰 또한 두터운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김벌리가 이처럼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결과로 그 혁신을 이끌어 온 주인공은 바로 문국현 사장이다. 문사장은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모토로 '4조 근무제'라는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의무로 인식시키면서 아시아an 웰스트리트 저널과 Hewitt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2003 아시아 및 한국 최고의 직장'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신경쟁력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뉴패러다임 포럼'을 구성하고 500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문사장을 만나 기업의 경영혁신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강화 요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사장님께서서는 1974년에 유한김벌리 평사원으로 입사해 전문경영인으로 지금까지 경영에 임하고 계신데 당시 특별한 입사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의 감회나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신지요.

유한이라는 회사의 전통성에 이끌려 장교로 복무하던 중 예편을 몇 개월 앞두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0여 년이 흘렀군요. 71년에 유일한 박사님이 작고하셨는데 평소 박사님의 뜻에 많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대학 졸업자들이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고, 저 또한 삼성에 입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유한의 정신과 전문경영인 제도,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인한 회사의 비전에 마음이 끌리더군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 가서 기여할 수도 있었고,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빛나는 기업에서 30여 년 간 일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한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소신있는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4년에 사장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공익캠페인으로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역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네요. 입사 8년 차가 되던 82년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안식년을 얻어 외국에 나가서 1년 동안을 보냈는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사회 공헌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귀국하면 경쟁력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경영혁신운동을 벌여야겠다는 것과 선진국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은 환경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귀국 후 회사에 숲 가꾸기 운동을 제안해서 84년부터 시작했는데 이해부족으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사에서 후원하고 있던 자선골프대회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후원금을 캠페인에 지원해달라고 설득해서 6개월, 1년 단위로 시작했죠. 그렇게 발전한 것이 94년부터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불필요한 기부행위로 인한 증여로 처리되던 것이 면세를 받게 됐어요.

매년 매출액의 0.5% 이상을 캠페인에 쏟아오고 있는데, 그 동안 이 기금으로 국·공유지 2,000여 만평에 2,0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회사 이름보다 더 많이 알려진 '국민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현재 여러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또 이처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습니까.

숲 가꾸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거의 숲과 관련된 운동이죠. 한 기업이 황폐한 나라 땅에 숲을 가꾸려고 하다보니 정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만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숲을 보호하면 물과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되면 삶의 질 또한 높아지

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한김벌리는 타 기업과 달리 환경경영보고서를 앞장서서 내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기업들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는 분위기를 앞장서서 이끌어보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는 제도죠. 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괜찮다는 인식으로 그저 사후 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중소기업체를 기준으로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업원들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원의 낭비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추가업무도 아니고 새로운 규제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존하느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1995년부터 회사경영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투명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셨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어떤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가장 큰 영향은 유일한 박사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기업을 하시면서 모은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실 정도인데 나머지 전문경영인이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죠. 박사님은 개혁가, 혁명가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회사를 설립하셨고, 일제시대 때 이미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이 해외에 게실 때도 전문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종업원 주주제, 최초의 상장회사, 최초의 합작회사를 만든 것 등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어나가는 것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비교적 예전의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을 상사 밖으로 꺼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박사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지난해 초 "윤리가 곧 경쟁력이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윤경포럼'의 대표로도 뽑히셨는데요. 실제 회사의 경영성과면에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리경영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것이 96년경인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대비한 결과로 IMF도 별 탈 없이 슬기롭게 이겨냈으니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의 관계는 증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은 비밀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비밀을 감추기 위한 조직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에 근거한 경영을 하지 못해 상상력과 직감에 의한 경영을 하게 되는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데 윤리경영, 투명경영이 되지 않는 기업은 계기판이 없던가 있어도 상당부분 조작되어 있는 계기침을 달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따르는 경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리고 이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뉴패러다임 포럼' 주최로 열린 "제2 경제도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500만 일자리 만들기로 유한김벌리의 '4조 근무제'를 역설하셨는데요. 현재 여러 기업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일차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종 기계, 설비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 불량품을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유한김벌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4조 2교대, 4조 3교대 근무형태는 4조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2교대냐 3교대냐 하는 것인데 4조 2교대는 12시간씩 2교대로

4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는 형태이고, 4조 3교대는 7일간 일하고 3일을 쉬는 시스템이죠. 특히 4조 2교대를 통해 33%의 증원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원들에게 휴식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 가운데 하루는 회사에서 개설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해서 직원들 간에 지식의 정보가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근로자는 공장의 부품처럼 맡겨진 업무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기능을 지닌 지식 근로자로 스스로 업무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조 근무제는 종업원들이 원해서 시작한 제도라는 것과 일감이 늘어나서 회사가 인력을 늘린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일하는 동안 일부는 쉬면서 재충전하는데 충분할 만큼의 인력을 늘린 점이라는 것이죠. 직원을 늘려 고용하면서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게 됐고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불량품 발생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4조 근무제는 비단 제조업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박물관은 자선이 수천 억 원씩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낮에만 개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력을 투자하게 되면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현재의 2200만 개 기존 사업장에서 25~50%의 고용 증가가 가능한 제도로써 당장 4조가 아니라 각각의 업무에 맞게 2조, 3조, 4조로 적용해 나가면 500만 일자리 창출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경영자연구회에 강사로도 나오셔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혁신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벌어지는 중국과의 외국인 투자 격차로 앞으로 중국을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축소와 자본이탈,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비전 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영자들의 경영혁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경영자들이 인건비가 비싸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경영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변명입니다. 노사간에 신뢰를 통한 신노사문화 정착과 기술혁신체제를 갖춘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비밀이 많아서 안됩니다. 기업의 혁신은 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경영에 비밀이 있어서는 불가능하죠.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아도 경영자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좋은 제도를 스스로 지킬 때에 가능성이 열리고 일이 편해지고 직원들에게 권한 위임이 되며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1대 주주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CEO가 1대 주주와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아니라 견제와 비판의 관계를 형성하면 되는 것이죠. CEO는 주주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1대 주주만을 대변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서는 경영과 환경에 관련한 업무로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평소 건강을 위한 취미활동 좀 소개해주시죠.

제가 회사 경영 외에도 환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바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권한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이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원칙에 따르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는 편입니다.

건강도 특별히 돌보는 것은 아니고 매일 간단한 체조와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집사람과 산책하는 것이 전부인데 술담배를 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 일들을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시간에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좀더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죠.

사장님은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저희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는 봉사하는 자세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는 이상은 최소한 남들보다 깨어 있고,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창설한 '뉴패러다임 포럼'의 목적도 신경쟁력 창출과 삶의 질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막고 직원들을 한 가정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평생 건강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이 그 동안 이루어 온 업적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의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학습하는 열풍을 CEO들뿐만이 아니라 CEO의 직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톱날은 열흘만 지나게 되면 무디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도 사라지고 나아가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손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

FARM TO TABLE

안전 축산물 생산이 목표

나는 30여 년 전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중앙일보 3층 이병철 회장의 옆방에서 용인자연농원(현 에버랜드) 건설본부 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께서 일본을 다녀오시더니 우리도 돼지를 키워서 일본에 수출하고, 100만평씩이 넘는 밤나무, 호도나무 단지에 돼지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자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회원이시며 당시 직장동료였던 허태학 사장이 (현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 같은 사무실 한쪽에서 호텔신라 설립을 준비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양돈장 건설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본에서 종자돼지를 세 비행기나 실어오고 여름, 겨울 없이 일년 내내 공사를 밀어 붙였다. 그 후 십 수년간 용인자연농원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우수한 인력들을 배출시켜 업계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농가들의 질시와 재벌이 돼지까지 키운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이병철 회장의 작고 후 바로 폐쇄되고 말았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태국의 CP그룹이 중국에서만 99개의 사료공장을 돌리면서 동남아 여러 나라의 사료, 축산업계에서 막강한 사세를 떨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High Tech 분야뿐만 아니라 Low Tech Business 쪽에도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에 CJ를 비롯해 몇 개 기업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지에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어 장래가 기대 되고 있다.

(주)다비육종은 영국제일의 JSR사 종돈을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주로 하는 직원 80명, 연간 매출액 360억 원 정도의 작은 회사로서 직영농장 외에 전국에 8개의 계약생산농장과 세 곳의 인공수정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민이 일년 열두 달 먹는 돼지고기 가운데 한달 반 가량은 우리 종자로 키운 것이라고 짐작하면 될 것이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 축산이나 사료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요즘은 고기나 우유가 모두 남아돌아서 귀한 줄을 모르지만 우리의 식탁이 이만큼 풍성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다. 이제는 돼지만 해도 900만 마리를 넘게 기르고 있고 배합사료의 경우 연간 1,500만 톤을 넘어서서 외형적으로는 약 4조 5천억 원으로 시멘트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은 것이 사료가 되었다.

최근에는 종자뿐 아니라 사료 및 사육기술지도까지 포함한 계열화사업을 통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맛있고 안전한 BRAND육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모든 식품이 그러하듯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첫 단계로 지난 7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사전 위생관리제도인 'HACCP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돼지 귀에 전자 칩을 장착하여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생산이력제(Traceability)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인론에서는 돼지농장의 질병이나 수해장면 등 보기 사나운 꼴을 주로 보여 주지만 많은 돼지농장에서 냉·난방과 환기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영양수준이 완벽한 사료를 먹여서 돼지를 키워낸다는 것은 잘 모를 것이다. 반도체공장에서는 Air-Shower를 한다지만 우리농장에서는 누구든지 방역상 옷을 모두 벗고 샤워하기 전에는 절대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 모두 살코기 속에 지방이 대리석 모양으로 골고루 적당히 섞인 것을 '마블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계적으로는 안 되는 기술의 결정체요 예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돼지고기를 18kg 정도 소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40~50kg 정도, 중국이 34.3kg을 소비하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양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육류에 대한 건강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또한 다른 육류와 비교해도 맛 좋고, 값싸고 영양가가 뛰어난데 단지 삼겹살만 찾는 왜곡된 식품관을 바로잡는 일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1997년 수입개방 이후 돼지고기는 거의 전세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한때는 벨지움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 적도 있고 호주에서는 냉장 돼지고기가 비행기로 들어오기도 한다. 구제역 발생 때문에 일본수출이 잠시 중단



되기는 했지만 세계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을 그냥 놓아 둘 수는 없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수년 내에 들어올 중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 동안 남들이 기피하는 산 짐승을 다루는 어려운 직업을 이어오면서 축산에도 기업적인 경영기법을 배워서 적용하려고 애써 왔다. 그래서 종자는 영국에서 들여오고 시설은 집약적인 관리가 가능한 네덜란드 모델을, 그리고 계열화는 미국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부지런히 쫓아 다녔다. 회사일 외에도 '민간가축 방역본부' 창설이라든지 국내 최대의 '도드람 양돈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등 대외활동으로 업계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 모든 인연이 돌아가신 삼성의 이회장님 덕분이 아닌가 회상해 본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지금하고 있는 일 외에 베트남 호치민 시 근처에 몇 사람이 공동투자해서 지은 10,000두 규모의 양돈장을 발판으로 30년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도 키우고 과거 전쟁 때의 빛을 갚는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도 쌀 다음 필요한 것이 고기일텐데 지금 그곳에 대단위 양돈장을 건설하려는 Norway 업체에 우리의 우수한 종자를 하루 빨리 공급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에 나무도 없으려니와 농사에는 화학비료보다 유기질비료가 더 좋다는 것은 상식으로 북한에 육류 공급과 농업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돼지를 키워서 영양보충도 하고 그 거름으로 강산을 푸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人間**



前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

참여정부와 지방분권 전략

동북아 경제중심건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여정부의 국가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참여정부에는 12가지의 국정기획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 하려는 핵심과제가 2가지 있다. 한가지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만들어 내는 것과 또 한가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이다. 여러 가지 부차적인 국정과제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5년 동안 잘 해내야 만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산신항와 광양,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곳을 동북아 물류기지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세계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두 산자부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주무 부처가 되어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행정자치부와 236개의 시·군·구와 16개의 광역자치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행자부가 주무 부처가 된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지방분권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인구가 현재 2,00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 4,700만 명 중에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더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6개월 남짓 고민을 해서 3대 개혁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완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지방분권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3대 개혁입법이다.

참 여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1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역대 정권들이 지키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신을 해서 못 믿으시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와는 우리의 농업환경이 많이 변화하였다. 만불의 소득이 되고, 주5일 근무제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닳새는 도시에서 살고, 이들은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촌의 전반적인 정주문화권을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으로 문화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와 농촌의 미래가 맞물려 있다.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그리고 일반종합행정자치의 유기적인 결합

국회에 제출한 3대 개혁입법은 지방분권특별법 같은 경우 참여정부가 5년 동안 지방분권을 이렇게 하겠다는 시간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그 속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졌었고, 역할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쯤 되어서 경찰자치는 조금 미루고, 교육자치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임기 말이 되어 두 개다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공이 참여정부로 넘어왔다.

경찰자치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궁금하고, 정말 달라질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텐데 경찰자치는 경찰기능을 이원화시키는 것이다.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시키게 되면 지방경찰이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방법, 교통,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 조기범죄나 마약수사 등과 같은 전국적이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중앙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경찰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져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보다 서비스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경찰자치가 시행되면 경찰 서장이 바로 주민들을 보고 행정을 할 것이다. 4년 동안 어떤 경찰서장이 담당을 했는데 잘했다면 한번 더 경찰서장으로 뽑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수님이 임명을 하는 방식 등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치안사정이 나빠졌다면 그 경찰서장에게 서장을 더 맞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의 청장이나 중앙의 권력을 쳐다보는 경찰행정에서 주민들을 찾아 모시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같이 가는 경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경찰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교육자치는 장성군에서 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인재

를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자신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상한 표현이지만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분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래서 교육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서울시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말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강남 8학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교육문제와 집값문제와 학업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혼란스럽지만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그리고 일반종합행정자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훨씬 더 나은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개편 및 행정계층의 축소조정

내가 행자부장관 시절에 몇 군데의 특강이나 세미나에 불려가서 행정구역개편이나 행정계층의 축소조정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틀림없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를 해서 오해를 산 적도 있다. 그러나 236개의 기초자치정부, 그리고 16개의 광역자치정부의 형식과 내용이 경쟁력과 효율이 가장 높다면 이 행정구역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의 네 계층으로 되어 있고, 군단위는 현재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각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이르지만 대도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계층에서 제외한다면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로 되는데, 이런 계층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려 하는가? 예를 들어서 무안과 목포의 통합문제가 늘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무안반도를 통합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가 진단, 판단을 해보았을 때 통합을 하는 것이 무안, 목포의 장기적 발전에, 주민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면,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목포시와 무안군에 제공을 해서 목포시의회와 무안군의의회에서 통합을 하거나, 곧 통과될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대로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 큰 도시가 분리되

는 것이 더 좋겠다는 진단이나 근거자료는 행자부나 행자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 제공을 하겠지만 두 도시가 통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결정권한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지, 과거



내무부에서 두 도시를 합하시오, 합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도 주지 않고, 일반교부세도 삭감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문제도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의 3 단계로 되어 있는데, 만약 내 개인의 사적인 생각으로 한 단계를 줄인다면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고, 생활밀착형 자치단체인 기초 자치정부를 살리고, 오히려 중간의 중앙정부와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시도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시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개혁과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참여 정부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으로써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나름대로 기획하고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다. 또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 상식인데, 특히 참여정부는 정권의 성격이 남달라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 기대에 많이 부응을 하지 못한 것 같다. 개인적 입장으로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기대를 정치개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었다.

참여정부가 탄생한 것은 시대의 요구 때문인 것 같다. 후기산업 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네티즌, 인터넷, 디지털의 분위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고, 이 분위기를 반영해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요구했었지만 한때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려고 미뤄두었는데 복핵문제, 카드채 문제, 이라크 사태 등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각 사회단체들의 요구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졌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타협과 자율과 분권, 협상과 타협을 국정원리로 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적용

하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너무 물러터진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각계각층의 갈등요인들을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 분권과 자율을 원칙으로 해서 풀려고 했다.

지금 보안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참여정부답게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이 늘 국민의 위에 있고, 국민들을 억압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국가 권력이 조금 낮아졌고, 참여정부는 국민과 국가권력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참여정부의 다음 정권은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문제를 국민들이 심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참여정부는 전통적인 국가권력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대통령의 우측으로 전통적인 국가 권력인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이 있고, 좌측으로 새로운 국가권력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검찰을 파견 받고, 검찰 인사에 관여를 했다면 오늘날 국민들이 검찰을 믿겠는가? 처음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 때 나도 권력을 남용하지는 않으시되 국가권력을 써야 한다는 건의를 몇 번 했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했고, 비자금 문제를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권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권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물러터진 정부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가기 위한 시작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국민을 섬기는 참여정부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人間**

중국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활용할 때

우리는 과거 '무한한 인구와 시장', '낮은 기술력', '싼 인건비'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중국을 관찰하였으나 중국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성과 역동성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실체와 실력을 직시하여 중국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원은 이에 발맞춰 중국전문가들과 회원들을 모시고 2003년 11월 25일 차이나 클럽(China Club)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클럽은 중국의 역사, 경제, 정치, 문화 등 원할한 중국정보 제공과 정보 공유를 도모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 형태로 출발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지난 창립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해 주셨던 조순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홍인기 한국증권연구원 고문,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님의 연설문을 소개합니다. (원고의 畵文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순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중국의 근대화 흐름은 아시아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황으로는 중국에 대한 지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아는 사람을 접하는 기회도 적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중국을 엄청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발전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 둘째는 문화적 저력, 셋째는 시운(時運)이다. 사람으로 보면 중국의 정치리더십은 세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한 리더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덩소평, 강택민, 주용기, 호금도 등을 포함해 모두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민들은 참용성도 있고 꾸준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이고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중국은 지난 150년 동안 여러 가지로 처참한 꼴을 당하고 죽어 있었으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살아 있어서 실력이 나오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다.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Empire였다.

제일 먼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과 같은 큰 엠파이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엠파이어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거느리고 더불어 사는 능력이 갖추어진 나라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50여 개나 되는 소수민족과 함께 가난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

세 번째로 중국을 대두시키고 있는 이유는 시운을 탔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든 운이 있어야 한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1990년대 Globalization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중국이란 나라는 절대 냉전시대 때 폐쇄된 분위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본래 중국의 엠파이어란 것은 알려져 있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폐쇄된 분위기에서 Nationalism을 갖고 발전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손문은 중국의 양자강에 댐을 건설해야겠다고 하면서 “중국은 공업화해야 하



는데 외자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침략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혁명의 기수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러니 등소평이 개방 개혁 정책을 들고 나오고 국민들이 그것을 따르다는 것이 절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나라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중국을 앞으로 발전하는 동안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도전은 미국의 견제이다.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서, 나쁘게 말하면 가상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발전만큼은 계속된다고 본다. 중국은 지금까지 양보를 거듭하면서 평화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경제시스템을 개발해 낼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맞는 정치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일들은 이미 많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면에 관해서 일단의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항상 중국을 잘못보고 또 잘못 본 결과는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이 워낙 크고 복잡한 나라여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보서는 노력만 한다면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인기

한국증권연구원 고문

중국의 고속성장 배경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우위, 둘째 외국인 해외직접투자(FDI), 셋째 수출, 넷째 재정사업이다. 기술우위에 대해서는 등소평이 얘기한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선부론이다.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이 흑묘백묘론이다.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우리 발전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칭화대학, 북경대학, 후단대학은 몇십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산학협동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직접투자이다.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GNP, 수출, 기술 등이 중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의 빅3와 일본, 미국의 빅3는 모두 중국에 갈 정도가 되었고 모든 기술우위산업이 중국에 가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가 되어서 FDI가 계속 늘어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출이다. 중국의 수출은 년 30~40%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과거에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던 것이 이제는 경쟁력 문제로 중국을 거치는 우회수출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의 IT제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중국을 경유한 수출이었다.

네 번째로 재정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 중국의 서부대개발이 진행중이다.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기동수(西氣東輸)라고 해서 서쪽의 천연가스를 동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4,212km 구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두 번째는 남수북조(南水北調)로 양쯔강유역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가는 프로젝트이다. 세 번째는 서전동송(西電東送)으로 대형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생긴 전기를 동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양자강을 막는 삼엽담 공사라고 해서 1차 공사는 마친 상태이다. 그리고 2010년까지 상하이에서 북경까지 고속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큰 공사들이 지금 중국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것을 중국사람들은 중국의 뉴딜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빠른 성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중국의 불량채권에 대해서 드디어 손을 댄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국유기업의 손익이 흑자가 안되고 중국의 4대 은행 여신의 40% 이상이 불량채권이 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관련된 국유기업이다. 중국에 현재 남아 있는 기업은 비능률적이고 적자만 있는 국유기업 뿐이다. 이것이 중국 증권시장의 큰 문제이다. 세 번째는 위안화의 환율문제로 수출이 잘되고 외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현재의 20~30%를 올리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수출이 어렵고 FDI

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네 번째는 디플레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덤핑으로 싸게 내보낼 수밖에 없으니 디플레를 세계에 수출하는 꼴이 된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원자재 값, 해운운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의 위험도 있다.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빈부격차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5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황화에 단수하는 날짜가 1년에 1/3였는데 요즘은 반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다.

칭따오를 다녀오면서 3000~40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나갈 정도로 중국은 수출로 보나 FDI로 보나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보기에는 중국의 안정이 흐트러지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되길 바래야 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중 국이 세계의 물꼬를 바꿀 수도 있겠다 하는 단적인 표현으로 후진타오가 13억 인구에게 '동시에 1m만 점프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가공할만한 영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란 나라가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의 지도층은 아주 노련한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이래 수망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한중외교가 정상화 된 것이 92년이지만 그 이전에 학자들 간에는 교류가 있었다. 나도 91년에 한중학자들 모임에 다녀왔다. 그 때 공식 회의 후 만찬 때 한국의 KOTRA적인 중국의 SETC의 사장이 벌(伐)자를 써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뭔가 했더니 중국에서 '너' 할 때 하는 니(?)의 사과 '나' 할 때 아(我)의 오른 쪽을 떼어내서 합하면 伐이 된다는 것으로 너와 내가 합하면 제3자를 정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제3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역사가 증명하는 나라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중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도층에 강력하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과 92년 수교직후에 내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맡고 있었을 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대표처를 1994년에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중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례나 한국의 정책이 실패했던 사례 등을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정책적 실수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잘 나가고 있다. 중국은 몇 가지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책이 실패했다던가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비하면 놀랍게도 그리 많지 않다.

세 번째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사례이다. 이대에서는 매 학기마다 2~3명의 중국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데 서류상으로 우수해서 입학시키고 난 뒤 실제로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대 국제대학원에 왔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한국이 어려운 국제환경과 국내에서의 이러 저런 분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국제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순항을 하고 있는 비결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아서 왔다고 대답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젊은 인재들을 보내서 속속들이 내부의 현장감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들의 합리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적인 측면이다. 나는 매년 APEC회의에 가지만 APEC회의에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중국이 아직은 개도국이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시장개방에 있다. 지금 중국이 완전개방 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2020년에 완전개방 하는 것을 중국 스스로 사인해서 그 유명한 호고르선언을 채택 한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명분과 합리성이 분명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결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공산주의를 오래했지만 지도층들은 놀라운 판단성과 합리성으로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人間**





카피라이터 최윤희

새해, 2004년이 밝았다. 나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묻곤 한다. “올해 희망이 뭐예요?, 올해 가장 많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99%의 모자람과 1%의 특별함’으로 신기하게 조립되어 있는 나는 천만다행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행운의 3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해서 사사건건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유전자, 별 것 아닌 일에도 깔깔깔, 하하하 웃음보를 터트리 는 웃음유전자, 사소한 일에도 호시탐탐 감동 하고 뒤집어지는 감사유전자 등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가슴을 푹 푹 푹, 노크하기를 좋아한다.



그 청년이 보고싶다

사람의 마음은 포털사이트와 같아서 그 가슴속 첨부파일 속에는 다양한 추억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어떤 부위를 클릭해도 와르르 하고 버라이어티한 인생이야기가 쏟아진다. TV에서만 휴먼다큐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한편의 감동적인 휴먼다큐인 셈이다.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휴먼다큐를 직접 보고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제 1의 희망사항은 그저 뭐니뭐니해도 가족 건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몇 명은 진지한 표정으로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건강보다 돈이 더 인생의 필수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은 단호한 표정들이었다. 또 그들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웃음을 주는 사람,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꼽았다.

그렇다. 나 역시 올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작년 11월에 만났던 ‘웃음꽃 청년’이다. 그는 렌트카 기사였는데 36세의 장애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신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인생이 즐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듯 마냥 웃고만 있었던 것이다. 정말 신기한 청년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그는 유전자 때문에 아이는 낳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유전자라니요? 저는 선천성 근육이완 장애인입니다. 뼈가 너무도 강해서 휘어지고 뭉치고 하는 병이지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잘 걷지도 못하고 서있기도 힘들지만 운전은 잘하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하하! 밝게 웃는 그 청년을 유심히 보니 과연 키가 정상보다 훨씬 더 작고 다리도 뭉쳐있었다. 나는 그가 핸들 앞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아서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부잣집 딸이었고 아버지는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술과 도박, 폭력에 절어 살다가 집도 재산도 다 날리고 8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지요? 한번도 어머니를 원망해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마음인들 오죽하시겠어요? 그리고 남들은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한 걸요? 오, 놀라워라! 불편한 몸으로도 살아있음이 그저 기쁘다는 청년! 형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복지재단에서 살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는 올해 73세가 되셨는데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또 물었다. 사람들이 마음껏 걸어다니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부럽지요. 그러나 저렇게 성한 몸으로 왜 저렇게 밖에 못살까? 내가 몸만 성하다면 더 열심히 살텐데, 나쁜 짓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지요.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10년 전 그는 형이 살고있는 복지재단에 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들린 '천사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고백했다. 내 인생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결혼하기 전 그는 그녀에게 약속하자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는 낳지 말자. 또 나처럼 불행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말자. 아내는 지금도 퇴계원에 있는 '나눔의 집'에 출퇴근하면서 버려진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새로 나온 책 「행복동화」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책 맨 앞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짝꿍. 최태형과 황혜경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저는 원래 점심을 먹지 않는답니다. 습관이 되어서 배고프지 않아요. 웃으며 말하는 그를 쳐다보면서 나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걷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일어서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굶으려고 하는 것일까. 나이가 든 나도 배고픈 것은 못 참는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청년은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슴속엔 눈물이 흘렀으리라. 나는 청년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자, 이거 먹어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이것은 너무 맛있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새해, 2004년. 나는 가끔 그 청년을 만나고 싶다. 그 청년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태와 교만을 말끔히 씻어내고 싶다. 아름다운 청년의 함박웃음이 내 가슴속에도 꽃처럼 피어나게 하고 싶다. **人間**



회원소식



■ **서울 영동농장 회장**, 재단법인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창립 이사장, 현 건국대학교 총 동문회 회장 김용복 회원의 70평생 인생 행로의 발자취가 일간지 국민일보 의 "역경의 열매" 라는 코너에 특집기획 시리즈로 채택되어 2003년 12월 1일부터 총 25회에 걸쳐 2월 중순경까지 매일 연재될 예정이다.

■ **임덕규 월간디플로머시 회장**은 창간 28주년을 기념하여 알제리아 대통령을 초청 <한·알제리아 경제 협력 전망> 세미나를 지난 12월 1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제7회 한국 e비즈니스 대상'에서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전용찬 회원 (관동대 교수)**은 최근 시집 「영혼의 흔적」(우리출판사)을 출간하였다. 전교수는 이에 앞서 「무궁화 동산에 핀 만상」, 「아침풍경」, 「감자꽃 향기」, 「벼랑 위의 깃발」을 출간한 적이 있다.

■ **에빅스(회장 박유재)**는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3 서울 세계베스트디자인전'에 참여하였다. 에빅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올해 우수산업디자인 대통령상을 받은 부엌가구 '스페셜 5002 화이트 핸들리스'에 대한 동영상과 현대적인 주방모습이 담긴 4종의 제품을 전시하였다.

■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은 11월 29일 고려대 LG 포스코 기념관에서 한국소비문화학회로부터 '제 3회 한국소비문화 대상'을 받았다. 소비문화 대상은 건전 소비 문화, 신소비 문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코리아나화장품은 이 중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건전 소비문화 부문 대상을 받았다.

■ **한국아쿠르트(사장 김순무)**는 지난달 5일 국립암센터에 발전기금 2억 원을 기증함으로써 3년에 걸쳐 모두 5억 원을 기증하였다.

■ **다산 윤영상 회장은** 지난 12월 4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4기 중국경제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제정보통신문화관에서 "중국 진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2시간 여 동안 강의를 했다. 강의는 다산의 중국진출 전략 및 새로운 투자의 현황을 비롯한 타 기업 성공사례 등의 내용으로 화보와 곁들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원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지난 40년 동안 금융의 외길을 걸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한 획을 그어온 **우리금융그룹의 윤병철 회장은** 12월 12일 중앙대학교에서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는 "참 경영인 상"을 전문경영인으로서 최초로 수상하였다.

■ **일본능률협회컨설팅(회장 아키야마 모리요시)**이 시상하는 글로벌경영대상에서 KTF가 최고상인 글로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글로벌 경영자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대상에 **남중수 사장**이 선정되었다.

YOUNG CEO FORUM 발족회원 모집

디지털세대 경영자들에게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영창출과 신사업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이미 사업기반을 세우신 선배경영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모임으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YOUNG CEO FORUM(가제)은 디지털세대 경영자들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정기적인 포럼을 운영하고 비정기적 산업시찰, 야유회 등을 주요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패기있는 기업인 및 임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발족식은 2004년 1월중에 예정이으며 상세내용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2203-7265 회원부)

신규회원 소식

이채욱 GE KOREA 사장(법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미래와사람빌딩 17층
· 전 화 : 02-528-0012
· 팩 스 : 02-528-0015
· 추 천 : 장만기 회장



윤지현 성덕대학 학장(개인회원)

· 주 소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1135-5
· 전 화 : 054-330-8866~7
· 팩 스 : 054-330-8870
· 업 종 : 대학



홍승기 유리스투자자문 회장(개인회원)

· 주 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한화빌딩 25층
· 전 화 : 3772-6250
· 팩 스 : 3772-6260



'회원 한 분 추천하기 캠페인'

본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회원 한 분 추천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추천받으신 분께는 연구원의 안내자료와 강연테이프를 동봉하여 추천해주신 분의 성함을 기재한 정중한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회원부 TEL.02-2203-7265 FAX.02-2203-1974)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광인	김용희 회장	(1월 3일)
점보실업	오성호 대표	(1월 3일)
신일금속센터(주)	김종엽 사장	(1월 8일)
(주)E&C정보기술	방기봉 회장	(1월 8일)
(주)평안산업	곽창근 대표이사	(1월 9일)
D.K. Corporation	공한수 사장	(1월 15일)
(주)제니엘	박종철 회장	(1월 15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허필수 회장	(1월 15일)
코리아홈쇼핑	박인규 대표이사	(1월 19일)
(주)실버텍스	정만우 대표	(1월 21일)
나경상사(주)	이승우 회장	(1월 23일)
청미원(주)	윤동노 대표이사	(1월 25일)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호성케멕스 최진석 사장의 아들 준철군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26일(금)에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02-3450-4203 호성케멕스)

회원가입안내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재외거주회원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특별회원 : 年 \$ 5,000 (6인이상)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 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2203-3500
· 팩 스 : 2203-1974

연구원소식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은 지난 12월 22일 송년모임을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님의 화장품 미술관 SPACE*C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화장품미술관 관람을 함께 하였습니다.

회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총무 송언기 태창플랜트 사장

■ 이종기업동우회 2그룹(多樂會)는 지난 12월 10일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부부의 참석과 선물협찬으로 즐거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락회의 신년모임은 2004년 2월 3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회장 전순표 세스코 회장 / 총무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

■ 지중해클럽은 12월 17일 24차 모임으로 송년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각자 준비해오신 선물교환과 출판사 한길사의 김언호 사장님께서 책을 참석하신 회원분 모두에게 선물해주셨으며 그 외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해오신 협찬품으로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2004년 지중해클럽의 정기 여행은 2월 24일에 중국으로 출발하는 것을 예정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2203-7265 회원부)

■ 2004년 1월부터 호텔측의 조찬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구회 참가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변경전〉 회원 ₩ 25,000 비회원 ₩ 40,000

〈변경후〉 회원 ₩ 30,000 비회원 ₩ 50,000

〈시행일〉 2004년 1월부터

본 연구원 장만기 회장은 지난 12월 15일(월)에 뉴패러다임포럼이 주관하고 KBS,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시민의신문이 주최한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신경정책 창출"이란 주제의『제 2경제 도약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참가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날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송년모임

본 연구원은 지난 12월 29일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송년의 밤"을 거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내외분들과 초청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혜연 소프라노의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하여 한자이선생님의 정기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분들의 장기자랑이 돋보인 행사로 삼익LMS(주) 심갑보 부회장의 가곡과 동명인쇄 우창욱 사장의 하모니카 연주와 이화여대 이동렬 교수의 섹스폰 연주 등은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행사에서는 최다출석상으로 김동철 유신산업(주) 고문님, 김정배 (주)수성 사장님, 오경근 베로니카아카데미 원장님께서 수상하셨고, 베스트질문상에는 심갑보 삼익LMS(주)대표이사 부회장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경품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년모임을 위해 상품을 협찬해 주신 분들〉

- 동남아 부부 왕복항공권 (김은경 지오코리아 사장)
- 휴대용 버너 20대 (강성모 린나이 회장)
- 고급세제SET 20개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 서예가 손경식 선생 휘호 1점
- 월록화백 그림 1점 (윤화진 센부테크놀로지 회장)
- 50만원상당 실크이불 (윤건우 삼보주단 사장)
- 150만원 상당 기능성화장품 (권기식 대화광고 사장)
- 마사지팩 150개 (김상희 웰코스 사장)
- 기능성화장품 10 SET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 총11권 2SET (한길사 김언호 사장)
- 2004년도 카렌다, 수첩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
- 구두3점 (엘칸토 김용운 회장)
- 30만원 상당 LCDP 피부재생 프로그램쿠폰 (김명신 신클리닉 원장)
- 제천사과 100상자 (한철용 서호농장 회장)
- 가족사진촬영권 50만원상당 (오경근 베로니카아카데미 원장)
- 공기청정기 1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 ZOCO쌍안경 10개 (부원광학 박춘봉 사장)
- 보약10박스 (인천실버타운 장찬기회장)
- 오리털점퍼150벌, 천연모피칼라코트150벌 (코리아홈쇼핑 박인규사장)
- MP3플레이어 2개 (삼성전자 이현봉 사장)
- 쌀 1가마니 (세람상호저축은행 이재용 사장)
- 와인SET (우리금융그룹 윤병철 회장)
- 하이퍼락 포르테(초유제품) 10박스 (전순표 세스코 회장)
- 도서(1분경영) 120권 (조천제 한국블랜차드컨설팅)
- 그림 1점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 김익영 도예작가 작품 1점 (최창락 인간개발연구원 이사장)
- 휘호 2점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송년모임을 위해 협찬해 주신 분들〉

- 김석기 관동실업(주) 사장 30만원
-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60만원
- 심갑보 삼익LMS(주)부회장 60만원
- 심용섭 워너뮤직코리아 사장 300만원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20만원
-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60만원

로마인 이야기 리더십 코스

극심한 혼란기를 헤쳐가는 생존전략과 지혜가 담겨있는 로마 인이야기는 21세기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와 리더들이 기업 경영의 지침서로 애독하면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자의 손자병법 등 역사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천년제국을 건설하고 번영을 유지한 로마인들의 지혜와 전략을 성공적 리더십을 통해 오늘날 그 필요성이 확대되는 국가, 조직, 인간 경영의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4년 2월 10일~3월 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5주간
- 장소 : 명동 은행연합회관
-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 매경인터넷

<1주>

주제 : 천년 제국 로마로부터 배우는 국가, 사회, 조직경영과 번영의 노하우
강사 : 공병호 자기경영연구소 소장

<2주>

주제 : 로마 번영의 견인차, 노블리스 오블리제
강사 :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3주>

주제 : 오늘의 리더가 알아야 할 로마 제국의 리더와 리더십
강사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4주>

주제 : 로마 제국의 국가운영, 정치,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용
강사 : 강영철 풀무원 부사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임교수

<5주>

주제 :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로마인
강사 : 배동만 제일기획 사장

<6주>

주제 : 나는 왜 <로마인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것은 어떻게 독자와 사회를 변화시켰나
강사 : 김언호 한길사 사장

<특전>

로마인이야기 총11권 제공
로마인이야기 서평 및 전문가 칼럼 이메일 서비스
매경 CEO Report 6개월 무료 구독
파주 출판문화단지(한길사 사옥), 헤이리아트밸리 초청프로그램
4월경 로마답사여행 참가(참가비 별도)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EPL43, 47기 "목회자 리더십" 교육안내

EPL 43기 목회자반에 이어 지난 11월 28일 개강한 EPL 47기(목회자2기)의 "목회자 리더십" 이 본 연구원 양병무 원장의 진행으로 국내 리더십교육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보다 밝은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목회자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명동지사] 송년모임 및 제2회 EPL 정기모임 개최

BIG DREAM & SUCCESS(대표 공한수)에서는 지난 12월 5일 삼성동 비즈바즈(bizbaz)에서 부부동반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유영 사장(CEO 1기)의 『EPL 프로그램 성공사례』 발표로 더욱 빛이 난 EPL 정기모임에서는 수료생 모두가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저녁에 개최되는 정기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4년 1월 12일 (월) 오후 6시 30분 ~
- 장 소 : LMI BIG DREAM & SUCCESS 명동교육장

LMI 교육프로그램 소개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 (EPL)
내용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독특한 행동계획 프로세스와 실천 훈련 과정
기간 : 16주간, 주1회 일정요일, 2시간
- 효과적인 성과 향상 과정 (EPP)
내용 : 조직생활의 성과향상과 업무에 대한 열정의 증대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
※ 석세스플래너 포함
기간 : 9주간, 주1회 일정요일, 3시간
- 성공하는 자기경영 과정 (EPM)
내용 :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에 따름으로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과정
기간 : 1일 5시간, 3주 후 3시간 피드백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처

BIG DREAM & SUCCESS (명동지사)

(T) 774-3230 (F) 757-3230 (H) www.whynotyouty.co.kr

한국엘엠아이(주) (잠실본사)

(T) 2202-8700 (F) 2203-1974 (H) www.lmikorea.com



(주)알파스포츠 송재문 회장

병마를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한 송재문 회장은 평생회원으로서 그 동안 연구원의 역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원이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역설하시는 모습에서 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 : 정용달 기자〉

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인간개발연구원이 지금과 같은 목요초찬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으니까 참여한 기간이 연구원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네요. 70년대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굶주려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6.25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는 첫 번째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장희장님이 말씀하시는 폴 마이어의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구회에 참석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강사나 강연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특히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모든 강의가 당시의 저희 세대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들이었죠. 특히 연구회를 통해서 자칫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멈춰버릴 수 있는 시야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언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를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넓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스포츠용품을 다루는 사업으로 경영을 시작하셨는데요. 계기라도 있는지요.

68년에 낫소의 전신인 서울화학을 창업했는데 화공학과 출신으로 고무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고무를 소재로 한 스포츠용품에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골프공을 연구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2년 오일쇼크로 골프는 사치스포츠로 전락하고 테니스가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 다시 테니스 공 생산에 들어가 수출을 시작했고 그 결과 테니스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스포츠용품 업계는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는 지금과 같은 지식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포츠용품은 시대와는 다소 맞지 않는 산업으로 그에 따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자세를 가져라

회장님께서서는 과거 병마를 이겨내시고 재기에 성공하셨는데 평소 좌우명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죽는 것이 사업가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고 병도 얻어 고통을 겪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비즈니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회장님은 병마를 이겨내시면서 대체의학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95년도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99년까지 병마를 이겨내기 위해 쉬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게 되면 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질병의 원인은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죠.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먼저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야 하고 주위의 환경을 바꿔야 하며 몸 속의 스트레스와 독소를 제거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상구 박사가 주도하는 '뉴스타트(NEW-START)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트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8가지 생활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Nutrition(균형 영양), Exercise(적당한 운동), Water(맑은 물), Sunlight(햇빛), Temperance(절제생활), Air(신선한 공기), Rest(휴식), Trust in God(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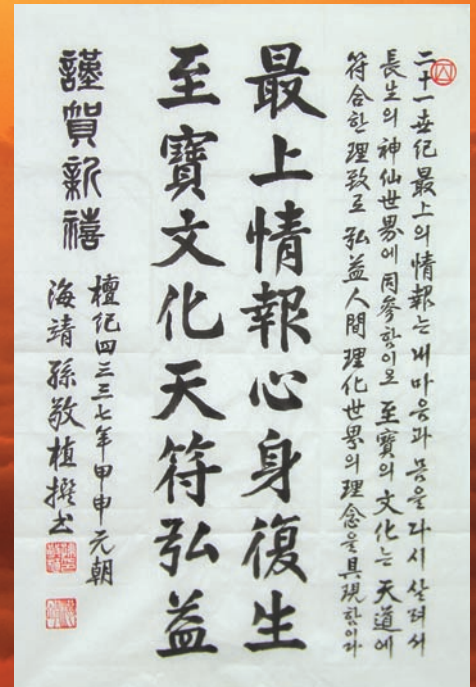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업적이야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와 전통 이상의 활동으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연구원의 활동에 있어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존의 실패를 이겨내고 지금의 발전을 가져온 분들과 새로운 세대를 결합할 수 있는 공존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 젊은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연구원이 친구를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人間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라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送舊迎新!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는 한밤중의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든다. 12월 31일 0시를 기해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의 타종을 지켜보기 위해 종로의 종각에 한겨울의 추위를 무릅쓰고 몰려드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처럼 말이다.

무엇 때문에 뉴욕의 시민들과 서울의 시민들을 그곳에 몰려들게 했을까. 서울의 보신각에 시민들을 모이게 만드는 송구영신의 다채로운 의식과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송구영신 행사는 사뭇 다르다. 스포츠행사, 락콘서트와 같은 요란한 흥행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찬란한 불빛을 받은 커다란 공이 밝게 빛을 반사하면서 높달란 기동을 하고 건물의 지붕 위에 내려앉는 광경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전야제 행사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힘든 교통체증과 뺨뺨한 지하철 속에서 싸울만한 가치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경축하며 보내고 있을까. 송구영신의 전야제는 오직 '시간의 흐름'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야단법석을 피우는 것은 12월 31일 0시가 지나간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2003년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렵게 지나온 한 해였다. 그러나 2004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산뜻한 새출발을 하면 묵은해에 겪었던 문제들과 고통들은 희미한 기억들로 과거사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지난 한해는 우리 연구원으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주간연구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BETTER PEOPLE BETTER WORLD」 애독자 여러분께 우리 연구원 임직원들은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정다감의 새해인사를 드린다.

금년 2월 5일이면 우리 연구원이 29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금년 한해를 넘기면 30주년을 맞게 된다. 지난 12월 29일 송년회에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원 가족들과 평소 우리 연구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흐뭇하게 보냈다. 새해 신년하례회에도 많이 참석하여 희망찬 새해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2004년을 생애 최고의 해로 맞이하시기 바란다. 人間

노사 협상은 여성이



동남신경영진과 이시형 원장

나는 평생에 머리 기름을 바른 적이 딱 두 번 있다. 한번은 장가는 날 형님이 발라 준 것이고 다음은 미국 병원에서 노사협의 대표로 나갔을 적이다. 넥타이에 정장을 입은 그날은 흥분하면 안되니까 커피도 못 마시게 한다. 본 회담보다 선배의 교육이 더 엄격하고 지루했다.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끝까지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라’, ‘우리가 손해다 싶은 선에서 절충해라’ 이런 바에는 왜 나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고 오라는 것이지 이길 생각이 처음부터 아니다.

미국의 노사 협상이 모두 이렇지는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데모를 해도 차로를 막거나 스피커를 크게 틀지 않는다.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조심한다. 내 권리 주장에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시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모는 엄격한 통제 관리하에 있다. 결정적 차이라면 웬만해서는 감정이 격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야 이성적인 토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 중추는 집에다 떼어놓고 오직 차가운 이성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분위기부터 요란하다. 울긋불긋한 깃발, 머리에 붉은 띠, 격앙된 구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표단도 마치 야전 사령관의 휴전 회담과 같다. 회사를 걱정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챙기겠다는 분위기가 아니다. 감정부터 앞서있다. 사측에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배신감이, 노측에선 ‘우린 착취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생기는 상황이니 쉽게 자존심이 상한다. 나중에는 오기로 버틴다. ‘내가 왜 먼저?’ 하면서 몇 달씩 감정대립을 하니 그 끝은 뻔하다. 영영 문을 못 열기도 하고 수습이 된 들 상처가 너무 크다.

노사의 협상기술 부족으로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기업은 해외로, 청년 실업자는 증가 일로에 있는데도 우리의 노사 협상은 구태의연하다. 안타깝다. 모두들 받을 동동 구른다. 이것이 한국적 우뇌형 사회의 결정적 취약점이다. 이성적, 논리적, 분석적인 좌뇌의 기능보다 감정적, 즉흥적인 우뇌의 기능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우뇌는 기분에 따라 쉽게 흥분한다. 감정이 격화되면 평생에 후회할 일도 거침없이 저지른다. 내일은 산수 계산, 당장 지금의 감정이 우선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성적인 좌뇌가 제동을 걸어 말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격앙된 우뇌의 감정 앞에 좌뇌는 맥을 못 춘다.

우리가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당장 눈앞이 급하다. 소탐대실할 수밖에 없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일단 흥분하면 앞 뒤 가릴 여유가 없다. 즉흥적, 충동적, 파괴적으로 변한다. 데모가 격화되는 것은 단순한 균중 심리만은 아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이것이 현명한 일인지 차분히 따져 볼 좌뇌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 민족성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는다. 알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노사 협상에 여성이 대표로 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여성은 좌·우뇌 반구를 연결하는 뇌량이 남성보다 20%나 더 발달되어 있어서 감정 조절을 잘 한다. 남성보다 훨씬 현명하다.

부부 싸움 끝에 화난다고 10층에서 뛰어 내리거나 청산가루를 병째로 들이마시는 남성네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 여성들이 팍팍 울면서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남편의 감정 상태를 예리하게 읽고 아주 약게 대처한다. 노조 위원장으로 출마한 여성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人間**



2002년 3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고문님**의 칼럼이 12월 호로 마감되고, 2004년 신년호부터는 이시형 동남 신경정신과 원장님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이규태 고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성공은 목적지가 아닌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아직도 시간에 쫓기십니까? 성공적인 시간관리 · 자기경영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바쁜 일상 업무 속에 묻혀진 가장 중요한 일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법!
EPM만의 시간사용에 관한 간단한 원리와 전문화된 솔루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여가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풍요로운 삶과
당신이 바라고 목표하는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드립니다.

EFFECTIVE
PERSONAL
MANAGEMENT

- 교육 구성 : 1일 6시간 9:00~ 16:00
- 교 재 : 학습교재 + My-Tyme Success Planner
- 참가 인원 : 워크샵과 참가자 자율학습 병행
- 참가 대상 : 전 임직원 및 일반인



한국엘엠아이(주)
<http://www.lmikorea.com>

■ 잠실본사 ☎ 2202-8700 ■ 명동지사 ☎ 774-32030



새해에도 좋은 꿈 키우십시오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더 잘 돌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웃음도 더 커질 겁니다.
새해에도 좋은 꿈 키우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를 키우는 은행
우리나라  우리은행